

2017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이름	최희*	학번	
파견국가	미국	파견도시	캘리포니아 Redding
파견대학	Shasta College	기간	2017. 6. 25. ~ 7. 16

2. 파견대학, 수업, 필드트립 등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p> <p>학교는 캘리포니아 레딩에 위치해있습니다. 비교적 시골에 위치해있고 시설은 나쁘지 않습니다. 평지이기 때문에 이동하기 힘들지 않고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.</p>
수업	<p>수업내용, 수업방법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p> <p>워드프레스를 기반으로 웹사이트 제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. 생소한 용어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미국인 학생들도 잘 알아듣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. 하지만 흥미로웠고 마지막 날에는 제작한 페이지를 소개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수업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었고 과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.</p>
필드트립	<p>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. 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등</p> <p>수업이 끝난 후 1시부터 거의 매일매일 필드트립이 진행되었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고 준비물은 미리 공지된 준비물만 챙겨가면 큰 무리없이 활동할 수 있었고 추가비용 또한 없었습니다.</p>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p> <p>햇빛이 굉장히 세고 건조한 날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늘이나 실내에 있으면 하나도 덥지 않았습니다.</p>
안전	<p>현지 안전 상황</p> <p>밤에 돌아다닐 일이 드물고 학교 내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안전한 편입니다.</p>
숙소	<p>학교기숙사(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) 홈스테이 (<input type="radio"/>) 외부 숙소(<input type="radio"/>) 기타(<input type="radio"/>)</p> <p>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기숙사 시설은 양호한 편입니다. 주방도 따로 있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. 규칙은 엄격하지 않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. 한 층에 샤워실이 2개뿐이라 적다고 느꼈습니다.</p>
식사	<p>학교식당 (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) 외부식당 (<input type="radio"/>) 기타 (<input type="radio"/>)</p> <p>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식사는 주말을 제외하고 기숙사 5분 거리 내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먹었습니다. 맛있는 음식도 있었지만 음식 대부분이 기름지고 짭니다. 주말에는 기숙사 내에 있는 주방에서 만들어먹거나, 주방에 있는 음식(냉동식품, 빵 등등)을 먹었습니다.</p>
교통	<p>통학방법, 시내교통 관련</p> <p>버스가 있긴 있지만 이용하기 힘들어 한 번도 이용한적 없고, 대부분 미국 학생들의 차를 빌려 탔습니다.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원

※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.

항목	비용(원)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보험료	31,300	출국 전 사전 납부
사비	350,000	쇼핑, 식비
항공료	930,000	단체 예매x, 개인으로 예매진행
합계	1311,300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.

레딩은 햇빛이 굉장히 강하므로 자외선 차단 제품(선글라스, 긴팔, 선크림 등등)을 꼭 챙겨가면 좋습니다.

돈은 많이 챙겨갈 필요가 없습니다. 쇼핑할 곳도 굉장히 드물고 식사도 학교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돈을 쓸일이 많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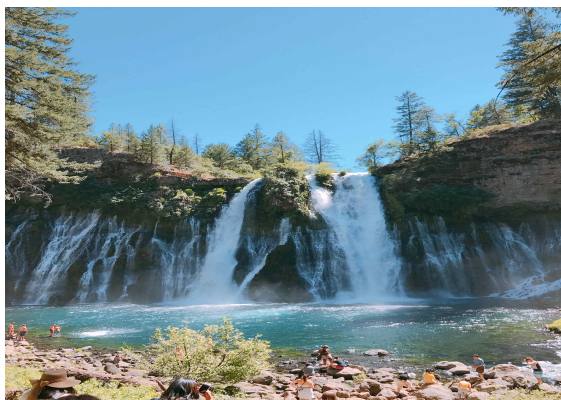
주말에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음식을 챙겨오면 편합니다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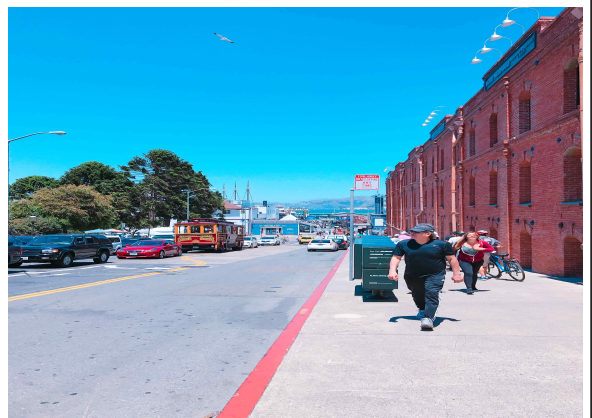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이 프로그램의 최고의 장점은 미국 학생들과 하루종일 내내 같이 활동한다는 점입니다. 웹 디자인을 배우고 매일매일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, 그 학생들과 지내면서 영어를 쓸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. 같이 지내면서 친구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기숙사 주방에서 저희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해서 미국 문화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친해져 헤어질 때도 아쉬웠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Burney Falls



샌프란시스코



샤스타 댐



치코 대학 행사



4th of July



Pool party